

“관조와 성찰의 詩語로 다시 살아갈 힘 얻습니다”

불자 장애인 문학모임 ‘보리수 아래’ 창립 10주년

불교계 유일의 장애인 문학모임인 보리수 아래(회장 최명숙)가 10주년을 맞았다.

보리수 아래 최명숙 회장은 “보리수 아래 10주년을 기념해 불교를 사랑하는 중증 장애인 불자들이 하나하나 써내려간 시를 모아 <단 하나의 이유까지-보리수 아래 10년을 여는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집 <단 하나의 이유까지>에는 보리수 아래 회원이자 장애를 가진 권오웅·김동원·김준엽·성인제·이경남·이순애·이인구·정상석·정훈소·최명숙·홍현승 등 11명의 시인들이 가슴으로 써내려간 시 67편이 담겨 있다.

시인들이 갖고 있는 사연도 다양하다. 근육이 마비되는 근이양증을 앓고 있는 권오웅씨는 힘겨울 때마다 글을 쓴다. 막대를 입에 물고 키보드 자판을 치며 시를 쓰는 김준엽(뇌성마비)씨는 시를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정상석(뇌성마비)씨는 바닥에 누운 채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힘겨게 시를 쓴다.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품은 시인들이 장애를 딛고 절절하게 써내려간 아름다운 시구들은 읽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울린다.

“말을 아껴 시로 생각하고/홀어진 밤을”

로 노래합니다/주변의 말이 넘쳐나고 있을 때/조용히 시어를 찾아봅니다/단절이 아닌 함축의 미 찾아/상상의 길을 떠납니다/감성이 봉오리로 맺힐 때/기쁨이 밀려옵니다/항상 그 자리 있는 말에게/생명 눈길을 줄 때 그들은/나의 꿈과 사랑으로 깨어/아름다운 시 이야기 합니다/ (이순애 시 ‘시로 하는 이야기’)

최명숙 회장은 “장애인 재활이라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걷는 등 재활치료로만 생각한다”며 “하지만 보리수 아래 회원들은 개인의 감성을 글로 표현하고 곡으로 만들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보리수 아래’는 2005년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과 최명숙 회장의 인연으로 만들어졌다. 매월 1회 청량사를 방문해 1500~3000배 정진을 하던 최 회장은 당시 영주장애인복지관장으로 부임한 지현 스님의 격려에 장애인 법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력을 더해 보리수 아래 창립을 결심했다. 준비기간에만 4년이 걸렸고, 2005년 모임을 결성한 후에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기반으로, 매달 한차례 오프라인 모임을



보리수 아래는 현재 해남 일지암 법인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이 지도법사로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있으며, 연1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공연과 문학작품집 발간, 음반 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왼쪽). 보리수 아래 최명숙 회장(사진 오른쪽)

2005년 지현 스님과 인연으로 창립 매달 한차례 오프라인 모임 가져 10주년 기념 시집... 11명 시인 67편 5월 7일 불교문화기념관서 시낭송

통해 결속을 다지고 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포교에 대한 고민은 문화와 문화를 통한 포교로 이어졌고,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은 시를 쓰고 공유하며 그 첫발을 디뎠다. 보리수 아래는 장애인 포교에 동기 부여

를 넣어주고 방향을 찾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 노래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공연에는 장애인 불자들이 가사를 쓴 노래발표, 시낭송, 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불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루로 끝나는 공연에 아쉬움이 컸던 최 회장은 이듬해부터 공연에서 선보일 시낭송과 시에 곡을 붙인 노래, 찬불가를 모아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다. 현재 3집까지 나온 상태로, 보리수 아래는 2011년에 발매된 세 번째 앨범 ‘비상, 그 날개 위에’를 2000매 제작해 보리수 아래 회원들과 후원자들



보리수 아래 최명숙 회장(사진 오른쪽)

을 비롯해 인연을 맺은 사람들에게 무료 보시했다. 또한 공동시집 <불길 위의 동행> <보리수 아래 그를 만나다>를 출간했다.

최 회장은 “공연은 하루 듣고 끝이지만, 앨범을 항상 가까이 두고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렇게 만들어진 앨범은 거동이 힘들어 공연장에 오지 못한 장애인 회원들에게도 큰 선물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리수 아래는 현재 해남 일지암 법인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이 지도법사로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있으며, 연1회 보리

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공연과 문학작품집 발간, 음반 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명숙 회장은 부처님오신날 및 보리수 아래 10주년을 기념한 공연인 ‘보리수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보리수아래 단 하나의 이유까지’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오는 5월 7일 오후 7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노래 작사 및 음악연주와 시낭송을 하는 장애불자 10명, 오케스트라 단원 및 초대시인을 비롯한 수화통역자 등 20명이 참여한다.

최 회장은 “장애불자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 더불어 가사를 쓴 노래 발표, 마임, 무용 등의 다양한 공연을 마련했다”며 “장애불자들이 참된 신생활을 하고 바른 포교활동을 하도록 함은 물론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키우고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는 모임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보리수 아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펴주시는 불교청량사 지현 스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지도법사 법인 스님, 후원과 자원봉사 등으로 동행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cafe.naver.com/borisu0708)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몽골 도시빈민촌 주민역량강화 사업 착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몽골 현지단체 CHRDR와 업무협약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빈민촌에 주민역량 강화 사업 착수를 위해 몽골 현지협력단체인 CHRDR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 26일 몽골 드림센터에 칸터거스(Gantogos Gantumur) 프로젝트를 매니저로 파견해 업무협약을 맺고, 몽골 성긴하이르구 게르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교육 및 저축그룹 조직을 통한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몽골 현지단체인 ‘CHRDR(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와 협력해 울란바토르시 빈민촌에서 주민저축그룹 구축을 통한 주민 자조그룹 조직과 우부르항가이드(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약 9시간 거리)에서의 마을 공동체 센터 건립을 지원해왔다. 또한 마을 주민들 간 네트워크 기회와 역량을 높이고 마을 저축그룹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해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바양주르호구 게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축그룹 조직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성긴하이르구에 인포메이션 센터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후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몽골의 울란바토르시 게르 24동은 전형적인 빈민촌으로 더 이상 유흥생활을 할 수 없는 시골의 유목민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면서 울란바토르시 외곽을 둘러싸고 형성된 게르촌이다. 몽골 정부의 지역사회개발이 한없이 늦춰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아동과 노인이 많은 특성에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특별한 사회복지혜택이 없고, 대부분은 식당노동이나 일일 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하루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07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호구 게르 24동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 26일 몽골 드림센터에 칸터거스(Gantogos Gantumur) 프로젝트를 매니저로 파견해 업무협약을 맺고, 몽골 성긴하이르구 게르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교육 및 저축그룹 조직을 통한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에 드림센터를 개관하고 도시빈민촌의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 대상의 방과후 공부방, 도서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저축그룹이 안정화되고 활성화된다면 아동과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CHRDR는 몽골 태생 현지 NGO로써 1998년에 설립되어 지역 주민의 자치적인 힘으로 지역공동체 조직과 지역사회 개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빈곤가정, 장애인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 사업, 저축그룹 조직사업, 네트워크 사업 등을 펼쳐오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몽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빈민촌에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운영사업과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한 저축그룹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 혜택과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는 기자

한국다문화센터, 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

5월 15일까지 다문화자녀 포함 참가팀 모집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이현정)는 6월 17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제6회 전국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는 다문화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일반 자녀와 함께 어울리도록 돕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사랑의 열매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합창대회는 50%이상 다문화자녀가 포함 된 중창단, 합창단이 참여할 수 있다. 센터는 5월 15일까지 대회 참가팀을 모으

뒤 예비심사를 거쳐 행사 당일 본 대회를 치르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대상(상금 300만원)을 비롯하여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지도자상 등의 상장과 상금이 부여된다. 합창대회 참가를 원하는 팀은 (사)한국다문화센터(02-737-0467~8)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다문화센터 관계자는 “전국최초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인 레인보우합창단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초청공연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나는 기자



지난 해 열린 한국다문화센터 제5회 전국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

인간의 길흉화복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혼들의 영향력 확인 천도법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내가영혼을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법. 환자와 가족이 확인

- 1 영가장애를 상담자에서 영가가 누구인지 확인체험
- 2 영가를 환자의 몸에서 확인가능 (6하원칙에 의한 빙의 경로 확인)
- 3 인체오라장 (생명전기장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빙의 확인 치유과정 확인)
- 4 일반병, 정신병, 영가질환의 구분 (질병의 원인 영가장애 확인)
- 5 보라색과 파란빛, 황금빛으로 영가들이 천도되는 것을 확인
- 6 암, 당뇨, 고혈압,중풍,치매,우울증, 불면증,공황장애, 트라우마, 빙의, 무속병, 환청, 환시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질환의 원인규명 (유전병 치료, 특이성 질환)
- 7 영가들의 수준확인
 - ⇒ 저급영가 - 한과 집착 질병 호소
 - ⇒ 중급영가 - 진리를 찾아 방향과 혼돈
 - ⇒ 고급영가 - 내면의 깨달음에 대한 갈망
- 8 신앙생활과 기도를 해도 진도가 없는분 스님, 불자분, 포교원
- 9 기도명상,만트라진언,영언수련을 통한 자신의 영혼과 교감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삶의 가치확립, 영혼의 윤회 과정을 확실히 알

검색 유튜브강의 자각선원 네이버카페 자각선원

자각선원 (인체전기파동의학) ☎ 043)296-5258.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원봉로 93

천하대도 자성과 마음을 열어 천부활력 만법을 담아 수행마장 귀신·잡신·빙의신·병마등 지부에 명부를 천부에 올려 건강 성불도통하는 령과육·혼이 하나로 되는 명부공사 천안통대법회

천부활력란 내안에 주인공인 마음자리 생명의 분향을 알리는 운명과 수명을 관리하는 삼라만상 종교를 초월 관리하는 명부공사로 대도는 진법과 스승없는 세울 수 없는 하늘땅 사람에게 감춰진 천부, 지부, 인부, 예단경, 금강진법사구계인 수,육,보,영,진종도, 민족업, 봉천명, 비법은 말과 글, 문자와 참선수행 종교를 초월 역대선지식님들도 풀지 못한 진법인 도, 고, 마성인 귀신 장난에 수행자나 스님 및 도인들도 철뿔맞아 병에걸려 수행자의 문전만 남기고 갈길을 가지 못하고 귀신장난인 령과 혼 그리고 령육이 하나로 되는 경신일 자오시에 빛으로 자신을 구하고 병겁을 넘어 비구, 비구니, 보살등 종교를 초월하여 도통하는 정법안장 마음에 문을 여는 경신일 자오시에 천지개벽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안에 삼신과 오장육부의 대지진으로 자신을 이겨야 자성불의 빛을 보는 천지공사 개벽으로 도인, 신선, 선녀가 되는 의통 능력의 초 신통력을 얻는 천하제일의 도법인 불생불멸하는 무량광자로 일류승승 되는 가장 빠른 수행으로 신의 노예에서 벗어 나고 해인도법의 잣대로 만유를 제도하여 마음의 두뇌를 여는 진법으로 지구촌 가장 빠른 수행자, 스님, 성직자, 도인들에 성불 도통하는 법 하늘, 땅, 사람, 자연, 귀신, 병마를 제도하는 법을얻는 신통초화 천만복만 개안통신 영육합일 도통하면 자신만이 부리고 자 손에게 내려가지 않는 활연개오 수명연장 대도통법인 것이다.



거부장자로 시는 불마구입처: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입 제 일 :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저녁 9시 (필기도구 준비)
- 해 제 일 : 2015년 4월 14일 화요일 저녁 9시 무박 2일
- 동 참 비 : 기도 및 교재비 10만원,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곽한영
- 상담전화 : 032)502-6625 / 010-9292-31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의 3층 원천사 (부평재래시장입구)

유불선 천지공사 불선도 십경신 도통회 총본산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종정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